

“기업 이익, 직원·지역사회와 나누겠습니다”

●이정일 ㈜다우환경대표

방계 업체...2002년 자활사업단 시작·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초록우산 멘토 아카데미 2년째...“취약아동 든든한 배경되고파”

“노동자가 존중받는 기업,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이정일(43·사진) ㈜다우환경 대표는 7일 ‘경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다우환경은 특수 클리닝, 저수조 청소 및 소독 방역, 조정 유지 관리 등 건축물 종합 관리 서비스 업체로, 2002년 자활사업단에서 시작해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당시 회사에는 저를 포함해 2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다우환경의 슬로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10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보장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 때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퇴직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동종 업계보다 선제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회사의 성장은 직원과 함께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또 이 대표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직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무비를 산정하면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이 대표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2014년부터 광주지역 내 1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무료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멘토 아카데미’에 2년째 참여해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멘토 아카데미는 자립 준비 청년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호 대상 아동과 1

1 결연을 맺어 심리, 사회,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칭된 멘티의 꿈이 애견 미용사임을 알게 된 이 대표는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진로 상담과 애견 미용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며 지금까지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긴장했다”며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멘티의 목표를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함께 여러 추억을 쌓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이 대표는 기업 성장을 토대로 직원 및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확대하며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경제적·정신적 지원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만든 이익을 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멘티가 좌절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임택 동구청장, 광주구청장협의회장 선출



광주 동구는 7일 “임택(사진) 구청장이 광주 5개 자치구 행정협의회체인 ‘민선 8기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오전 열린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간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타 구청장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상생하는 구청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정기자



여수시도서관리공단 ‘쓰레기 배출’ 홍보 캠페인

여수시도서관리공단은 “최근 교통 상가 및 특화시장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종량제 봉투 사용 시 무게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수거 환경을 위해 종량제 봉투는 50ℓ당 10kg, 75ℓ당 15kg 이하의 무게로 배출해야 한다. 공단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을 잘 준수하도록 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여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농가주부모임 담양군연합회는 “최근 수북농협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나눔봉사는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담양군 관내 농협과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최순남 농가주부모임 담양군연합회장 및 회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미숫가루를 홀로 지내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200가구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거북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은 “매년 농가주부회원들이 회비를 모으고 시간을 들여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누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다”며 “농가주부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외출 나온 해군, 몰카범 잡았다

전상규 해군 3함대 상병, 목포역서 불법촬영 男 붙잡아 경찰 인계

해군 장병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이하 3함대) 소속 기지지원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상규(21·사진) 상병이다.

7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에 따르면 전 상병은 지난달 말께 외출을 나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목포역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여

성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해당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는 듯한 모습을 본 전 상병은 이후 남성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 여성이 기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이동하자 남성도 뒤따라 가는 것을 본 전 상병은 남성을 쫓았다.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또다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한 전 상병은



저지없이 남성을 붙잡아 도촬을 추궁했다. 그 결과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다수가 나왔다. 전 상병은 목포역 직원들과 함께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목격자 진술까지 마쳤다.

전상규 상병은 “처음에는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았으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며 “그날 지나치면 더 많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몸이 저절로 움직었다. 오로지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에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외출 중에도 국민 보호의 임무를 완수한 전 상병의 공로를 치하하고 이를 포상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매일신문, 글로벌지역아동센터 ‘NIE 3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4일 광주 광산구 글로벌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2차 순회 교육 때 배웠던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은진(산월초 6)·장현성(산월초 5)·우보미(산월초 4)·계현서(산월초 3)·염봄이(봉산초 2) 학생들은 편집전문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활용해 직접 사진과 기사를 배열하는 등 교육에 열의를 보였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대구경북호남향우회 ‘전남 고향기부 캠페인’ 동참

전남도는 7일 “대구경북호남향우회가 고향 사랑기부의 뜻을 모아 ‘전남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동참하고 전국적인 확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미래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1일 1천원씩 꾸준한 기부 실천을 통해 고향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전남도의회에서 시작해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구경북호남향우회 회원들은 “2024 대구지역 축제 ‘대구경북호남향우회’에서 고향사랑 캠페인을 추진 중인 전남도 홍보부스를 최근 방문해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전남도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부금을 기탁했다.

김주찬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전남 365 캠페인 소식을 들었다. 하루 1천원씩 소액이지만 꾸준한 기부가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출향 인사 중심의 365 고향사랑기부 릴레이를 대구경북호남향우회가 처음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KMI한국의학연구소,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기탁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2천만원은 광주자립전담기관을 통해 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은 “어떤 기업이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고 보듬어야 한다”며 “자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성장해 국가와 세상을 더 밝게, 더 건전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후원 등 최근 광주지역에 10년간 1억1천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던 참에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정성을 더해줘 힘이 된다”며 “청년들이 힘을 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도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광주소방 첫 ‘여성 인명구조사’ 탄생

정은화 광산소방서 소방사 자격시험 합격

광주소방 최초로 여성 인명구조사가 탄생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9회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서 광산소방서 빛그린119안전센터 정은화 소방사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사는 많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소방관 자격이다. 수중·수상 구조, 로프 하강과 등반, 교통사고 구조 등 깊이 있는 인명 구조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고난도 시험이다.

정은화 소방사는 지난해 1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이다. 짧은 경력으로 고난도 인명 구조 기술을 연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비번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시험을 준비했다.

정은화 소방사는 “소방관이 갖춰야 할 역량과 시민을 구조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싶어 인명구조사를 취득했다”며 “소방관이 기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인사

- 광주서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 ◇4급 전보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 ◇6급 승진 ▲경제과장 직무대리 임선미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종민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용금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은주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직무대리 정명숙
- ◇6급 전보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유덕동장 정인국 ▲시장동장 정소현 ▲도시관리과장 한미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위생과장 박재영